

Market Weekly

check ME up!

2026년 6월 3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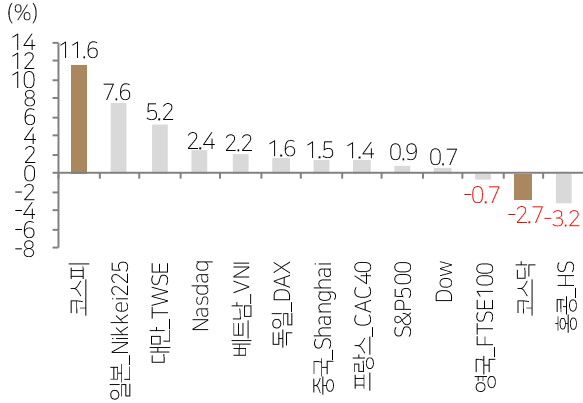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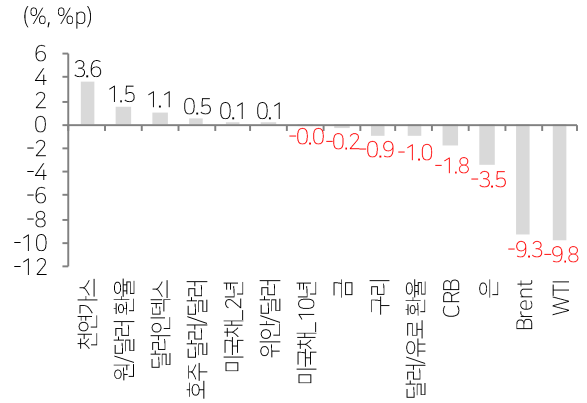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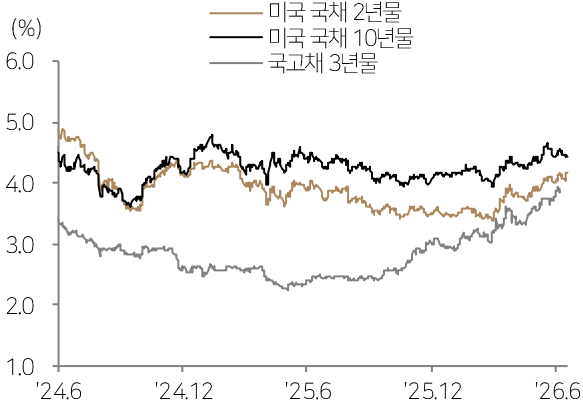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6/12일 대비 6/18일 증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Note: 수익률은 6/12일 대비 6/18일 증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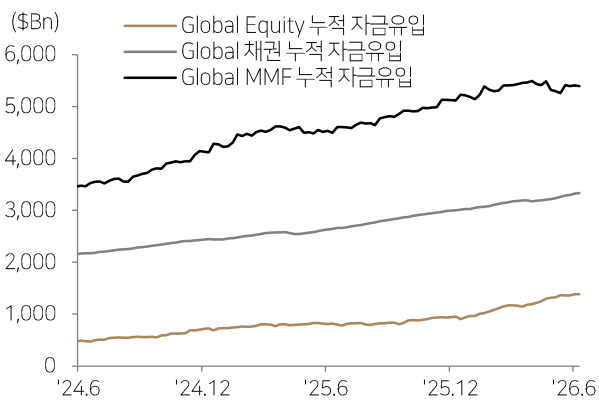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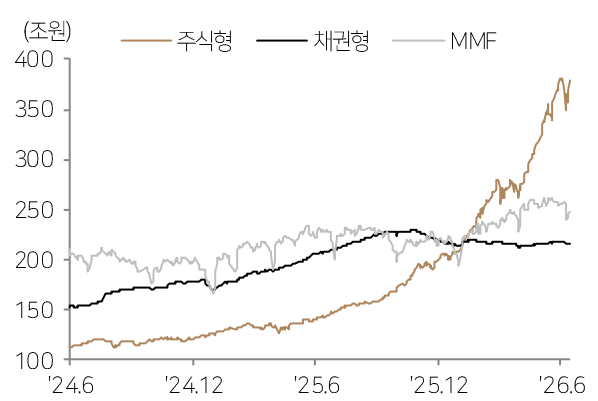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II. 경제지표 Preview

- 최근 한국의 내수와 소비지표가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6월은 금통위가 없지만 7월 금리 인상 전망이 점차 기정 사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리의 인상 속도 및 폭을 가늠하는 차원에서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 수출의 호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지수의 반등에 따라 소비심리 지수도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음. 소매판매도 소득 개선 및 관광객 유입으로 금액 측면의 레벨 업이 확인 중. 내수의 호조가 강화될 경우 3회 이상 인상 전망이 강화될 수 있음
- 미국 PCE 물가지수도 예정 CPI가 예상치를 다소 화회하는 결과를 보였고,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계심은 다소 낮아져 있으나, 연준이 FOMC를 통해 매파적 스탠스를 보여준 만큼 당분간 인플레이션 지표들의 영향력은 높게 유지될 듯. 전체적인 물가 방향은 비슷하게 형성되었지만, 예상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불안감이 자극될 수 있는 만큼 주의는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6-22	한국	6월 수출/입 20일간	%yoy	-	64.8/29.3
2026-06-23	한국	6월 소비자심리지수	Index	-	106.1
2026-06-23	미국	6월(잠정) S&P 글로벌 제조업 PMI	Index	54.6	55.1
2026-06-23	미국	6월(잠정) S&P 글로벌 서비스업/종합 PMI	Index	51.0/-	50.7/51.5
2026-06-24	한국	5월 소매판매	%yoy	-	7.2
2026-06-24	미국	5월 신규주택매매	%mom	3.5	-6.2
2026-06-25	미국	5월 PCE 물가지수	%yoy	4.1	3.8
2026-06-25	미국	5월(잠정) 내구재 수주	%mom	-4.7	8.0
2026-06-25	미국	1분기(3차) GDP 연간화	%qoq	1.7	1.6
2026-06-26	일본	6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yoy	1.6	1.4
2026-06-26	미국	6월(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Index	50.0	48.9
2026-06-26	미국	6월(최종)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	-	4.6
2026-06-26	미국	6월(최종)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이션	%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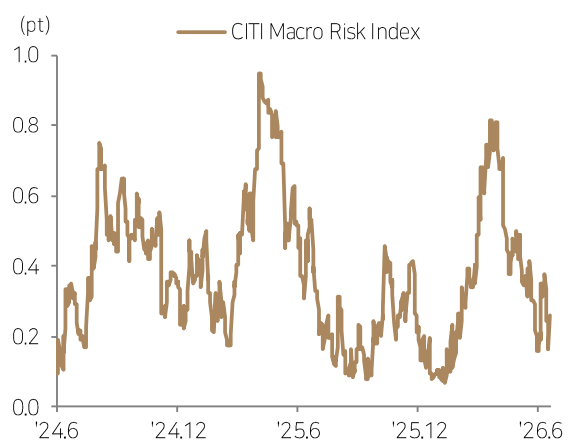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6/23	글로벌	상	MSCI 시장 분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 2008년 선진국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가 2014년 제외, 2025년 리뷰에서도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된 바 있음. 2025년 리뷰에서 MSCI는 한국 주식시장 개혁의 실효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며, 역외 FX시장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편입 보류의 핵심 사유로 재확인 정부는 2026년 1월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올해 6월 관찰대상국 등재를 공식 목표로 제시. 정부가 제시한 최선 시나리오는 2026년 6월 관찰대상국 등재 → 2027년 편입 결정 → 2028년 실제 지수 반영
6/24	미국	상	마이크론 실적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시간 24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예정(한국 시간 25일). 26년 3Q 컨센서스는 매출 350억달러, 영업이익 270억달러, EPS 19.98로 형성되어 있음. 전분기 매출 239억달러, 영업이익 162억달러, EPS 12.25로 발표 마이크론은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HBM 및 DRAM 실적 방향성을 선행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 브로드컴발 쇼크 이후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잔존한 만큼 실적뿐만 아닌 수익성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도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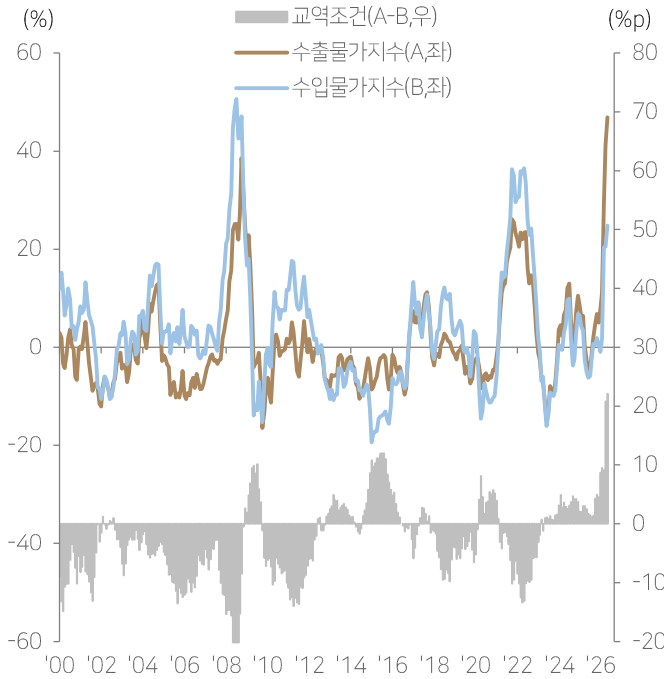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6/12~06/18) 증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PI(+11.6%) 상승, KOSDAQ(-2.7%) 하락. KOSPI는 IT하드웨어(+24.1%), 반도체(+18.0%), 보험(+13.4%)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통신서비스(-5.4%), 소프트웨어(-4.1%) 업종 하락. 코스피는 미·이란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소화하며 상승 출발.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주주환원 기대감, HBM4E 샘플 공급 등 연속 호재로 신고가 달성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 한편 6월 FOMC에서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됐으나 반도체 업황의 강한 실적 기대감으로 영향은 제한적, 코스피는 사상 첫 9,000선을 돌파 마감. 수급 측면에서는 약 한달간 일간 순매도를 이어온 외국인인 주종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 나타남 DOW(+0.7%), S&P500(+0.9%), NASDAQ(+2.4%) 상승.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 전해지며 위험선호 심리 확산, 기술주 중심 매수세 유입. 주종 FOMC에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시사되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되었으나 반도체주의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며 랠리를 지속
차주 (06/22~06/26) 증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심의 영역에 있었던 일련의 통화정책 회의들이 마무리된 상황. ECB와 BOJ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미 연준도 기존에 비해 상향된 점도표 등을 통해 매파적인 톤의 정책회의였던 것으로 정리되고 있음. 그러나 상기 통화정책회의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연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하지는 않았다는 점. 시중금리는 유가 충격에 대한 매파적 태도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사전적으로 상승해 있고, 유가는 하락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단은 금리 상방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는 국면으로 판단 물론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의 변곡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금리도 빠르게 내려올 상황은 아님. 미국 CPI를 기준으로 7월은 추가적인 상방 움직임이 확인될 가능성도 높음. 물가 발표 시점을 전후로 금리 변동성 확대 및 증시 경계심이 유입될 가능성은 상정해 둘 필요가 있겠으나, 그 전까지 금리 부담 이상으로 실적 기대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반도체 및 IT H/W를 중심으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증가 대비 금주 목요일 증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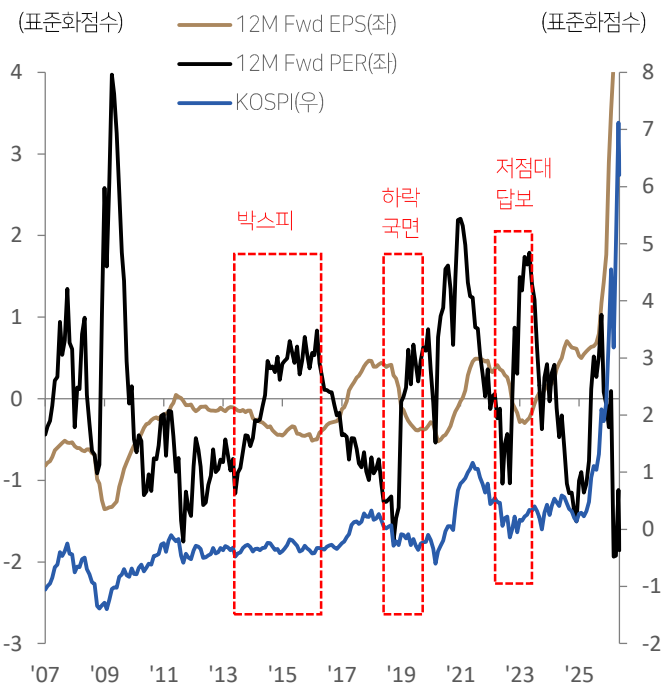
한국 교역조건 개선, 높아진 수입가격 부담을 수출가격이 상회하는 상황은 한국 경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주중 한국 수출입 물가가 발표. 수입물가는 +24.8%, 수출물가는 +46.9%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이 두 증가율의 차이는 교역조건으로, 교역조건 개선은 비용 증가 부담을 매출 증가가 상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 경험상 현 상황은 이례적. 에너지/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한국은 글로벌 경기 업사이클 국면에서 수출물가 증가율이 수입물가를 상회했던 경험이 거의 없음. 교역조건 개선은 보통 수입물가의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 결국 업황 개선이 비용 부담을 상회하는, 실질적 교역조건 개선이 기업 이익을 견인하는 드문 국면이 전개 중
- 26년 기준 한국 수출에서 최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IT제품/부품으로 전체 수출의 47%.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 채산성 개선을 이끄는 산업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도주 집중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한국 증시의 상승, 항상 멀티플보다는 펀더멘털의 견인력이 우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한국 증시에서도 중앙은행들의 연속적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이 투입될 때, 멀티플이 상승하며 지수가 급등했던 경험은 존재. 코로나 직후 반등 국면이 대표적. 그러나 한국 증시 역사에서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은 멀티플 일변도의 상승이 장기화되거나 지수 레벨업이 이끌었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그림에 표시된 국면들은 연준의 저금리 기조 지속,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멀티플 상승이 나타난 구간. 그러나 지수는 담보 혹은 하락 구간을 경험. 첫째와 마지막 사례는 코스닥의 아웃퍼폼이 나타나기도 함
- 두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음. 하나는 현재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할인율 우려로 잔존한다 해도, 이익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면 상승 기대는 유효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견인력이 약해질 때, 시장 전체 이익 추이를 받쳐 줄 대안 산업이 뚜렷하지 않다면 금리 하락과 멀티플 상승에 따른 순환매가 나타난다 해도 이번 상승 사이클의 종장일 가능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업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